

한국도 ‘한일터널추진위’ 만들어야”

미조하타 히로시(溝畑宏) 전 일본관광청 장관 역설



미조하타 히로시 전 일본관광청 장관이 서울 반포 JS메리어트 호텔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바쁘신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오늘 한국에 89번째 왔다. 제가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동생 황보관(대한축구협회 기술교육실장)도 여기에 와 있다. 황보관하고 저는 1995년 서울에서 만나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리츠 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 창립 등에 힘을 모았다. 그리고 일본 오이타현에 축구대회를 만들어 우승할 때까지 함께 일하며 한일 양국을 잇는 의형제 관계를 구축해왔다. 저는 한국인들과 많은 일을 함께 하며 지지를 받았기에 늘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며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 저는 애국가를 좋아해서 애국가를 먼저 부르고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조금 어눌했지만, 애국가 1절을 끝까지 부름)

일한터널은 한일 최대 비즈니스

저는 교토에서 태어났다. 동경대학을 졸업한 뒤, 일본을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총무성에 입성해 공직을 시작했다. 총무성에 있을 때 간접세를 만들어 좋은 성과를 거뒀다. 구라파에도 잠시 가 있었다. 지금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국이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상호 평화와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일한터널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제가 홋카이도(北海道)에 발령받아 갔을 때 홋카이도와 아오모리(靑森) 사이에 세이칸 터널이 개통되었다. 홋카이도와 아오모리의 경계선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였고, 세금을 어떻게 부과해야하는지를 놓고 양쪽 자치단체 간 굉장히 민감했다. 경계선의 길이가 세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 4개월간 격렬하게 논쟁이 일어났는데 후에는 서로 존중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홋카이도와 아오모리간 교류 방안이 폭

넓게 논의됐고, 두 지역 간 신칸센이 개통되면서 세이칸 터널이 두 지역의 대통로가 됐다. 당시 해저터널 개통이 지역 교류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 지 실감했다.

이후 오이타(大分)현에 갔을 때, 오이타현과 에히메(愛媛)현을 연결시키는 구상이 나왔다. 이것도 제가 담당했다. 큐슈(九州)와 시코쿠(四國)를 교량으로 연결시키는 프로젝트인데, 스포츠와 문화, 경제교류도 뒤따랐다. 이때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큐슈(九州)와 한국을 연결시켜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 마음이 더 강해진 것은 오이타에 갔을 때였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놓고 오이타현 책임자로서 대회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했다. 그때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다. 저는 오이타현 프로축구팀을 창설하자는 생각을 했고, 축구장을 만들어 한국으로부터 관광객 3만 명을 유치하면 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했다. 만약 일한터널이 뚫려있었다면 한일 양국의 교류가 활발했을 것이고, 한국 관광객 유치가 쉬웠을 것이다. 일한터널에 대해 좀더 논의하기에 앞서 제 한국인 동생 황보관에 대해 잠깐 말씀 드리고자 한다. 한일월드컵 대회에 앞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야구장을 깎아 축구장을 만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 교섭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이 제 일과였다. 사람은 큰 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지도자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보다 땀을 백배나 많이 흘려야 한다. 나는 얼마든지 일본의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했다. 그때 대한축구협회 문정식 부회장을 만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저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다. 유럽에 있을 때부터 유럽축구팀을 응원하며 축구경기도 자주 관람했다.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는데 1976년에 국립경기장에서 한일 축구전이 있었는데 일본이 3대 0으로 졌다. 한국에는 키가 큰 선수도 있었고, 기량 면에서 도저히 일본이 한국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당시 한국축구는 인상 깊었다.

이 때문에 오이타현에서 축구팀을 만들 때 브라질이나 네덜란드 팀보다 일본과 가까운 한국에 찾아가 협력을 구했다. 당시 한일 양국은 월드컵을 앞두고 경쟁의식이 팽배할 때였다. 나는 월드컵에서 일본이 지더라도 나중에는 서로 협력할 날이 올 수 있으니, 한일 간 감정 따위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의 협력을 얻어 축구팀을 창단하게 된 것이다.

제가 문정식 부회장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 제가 부모님이 계시는 이탈리아에 가서 TV를 켜는데 스페인과 한국이 대전하고 있었다. 그때 필드에서 중흥무진 활약하며 굉장한 골을 넣은 한국인 선수가 있었다. 바로 여기에 있는 황보관이다. 90년대는 일본이 월드컵 예선에서 번번이 탈락했는데, 한국은 번번이 통과했다. 황보관 같은 선수가 한국축구를 돋보이게 했다. 95년 만해도 일본팀은 아주 약했다. 문정식 부회장에게 황보관 선수를 데려오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더니 흔쾌히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드디어 1995년 12월 2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국의 슈퍼스타 황보관을 만나게 됐다. 저는 겁없게도 황보관에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팀을 만들자 제안했다. 솔직히 창단하는 팀은 재정도 빈약하고 축구장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황보관은 이해관계를 떠나 기꺼이 오이타로 와 주었다. 이듬해 오이타 축구팀을 만들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끌자고 의기투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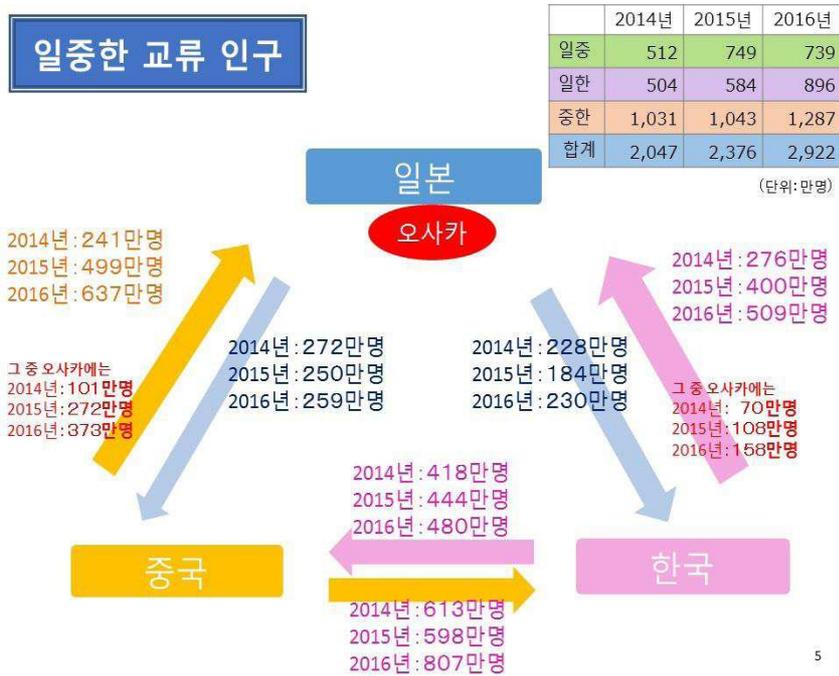
이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은 일본에서 처음 생긴 국제대학인데, 울산대 명예학장인 정몽준씨의 협력으로 이 대학을 만들 수 있었다. 오이타 토리니타 구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정치, 경제계 등 많은 분들의 협력을 얻고 우정도 쌓았다. 한국과 일본 사이 스포츠 교류가 그때부터 많이 진전되었다.

제게는 좋은 경험이었다. 그 때 한일월드컵 관계로 한국에 자주 방문했다. 한국은 전국적으로 좋은 문화가 있었고, 일본이 배워야 할 문화가 많음을 알고 난 뒤부터 많이 배웠다. 영양, 밸런스, 발효 등이 우수한 한국 식문화에서도 많은 감동을 받았다. 무엇보다 한국인의 인정과 노인 공경 정신이 인상 깊었다. 어렵고 힘들 때 황보관을 비롯해 많은 한국인들의 협력과 지지를 얻었다. 제가 밝게 보이지만 머리도 많이 빠지고 이혼도 하는 등 힘든 시기를 겪었다. 그럴 때 저를 도와주고 지지한 사람이 황보관이고 많은 한국인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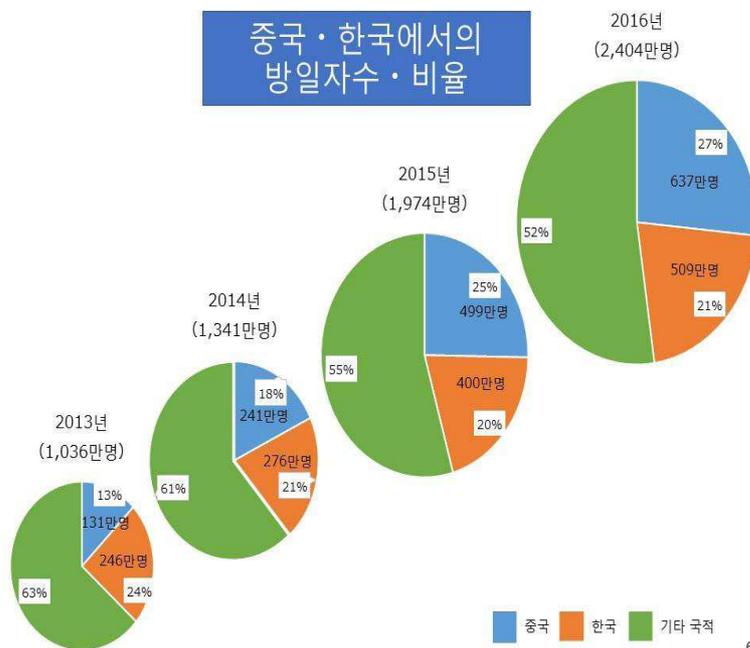
2002년 월드컵 때 일본을 세계에 선전하고 싶었다. 마침내 월드컵을 성공리에 끝냈고, 그것이 한국과 일본 축구의 교두보가 되어 14년이 지난 지금 한국과 일본 축구는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저는 오이타 토리니타 구단을 창단할 때 한국의 축구협회와 약속을 하나 했다. 일본 도내에서 이기면 우승컵을 들고 한국으로 인사하러 오겠다고 했는데 2008년 그 꿈을 이뤘다. 그래서 약속대로 우승컵을 들고 한국을 방문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듬해인 2009년에는 우리 구단이 최하위를 차지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폐했고 많은 이들의 질책도 받았다. 이후 구단장을 그만두고 정부의 공직복귀 명령을 받아 2010년 관광청 장관으로 취임했다. 오이타 현에서 오래 살았고, 월드컵 관련해 많은 프로젝트를 해온 인연으로 다시 한번 일본이 세계를 향해 선전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취임했다.



5



6

일본이 자랑할 것은 5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 하나가 아름다운 자연이다. 일본은 국토의 70%가 숲으로 이뤄져 안락하고 청결하다. 이것은 건강과 장수로도 연결된다. 일본은 세계 1위의 장수국이다. 옛날부터 물건을 잘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발굴-연마해 세계로 진출한다면 각 지역 발전을 활성화시키고 일본 전체를 활기차게 할 수 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일본과 중국, 한국이 서로 교류인구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해왔다. 2014년 일본의 한 데이터를 보면 한·중·일 3국의 교류 인구가 순조롭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강원도 평창에서 한·중·일 관광장관회담도 열렸다. 회담기간 평창에서 300명분의 비빔밥을 만들어 방문자들과 나누어 먹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일본 대지진 때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

었는데 어느 곳보다도 빨리 한국인들이 달려와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여행관계자들의 경우 일본에 관광객을 보내줘 도와주었다. 지금도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 일본 대지진때 가장 많은 협력을 받은 것을 일본인들은 잊지 말고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중국 경제가 더욱 성장하면 한·중·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 일한터널이 본격 추진된다면 한·중·일 간 교류를 가속화할 것이다. 2018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은 결과적으로 한·중·일 관광문화 진흥을 촉발할 수 있다. 일본에서 2019년 럭비 월드컵, 2020년 도쿄올림픽 등이 이어진다. 2022년에는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이들 세계적인 빅이벤트는 한·중·일 교류를 크게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한·중·일 교류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이 기간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중대한 과제이다.

아시아 인구가 40억 명을 돌파했다. 2030년에는 55억 명이 될 것이다. 한·중·일이 중심이 되어 어떻게 하면 베트남과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저개발 국가의 경제발전을 견인하여 아시아 전체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인가를 궁구해야 한다. 이것은 역내를 물론 세계 경제 발전에 중대한 과제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향후 10개년 경제성장을 위해 제4차 산업혁명, 재생 에너지, 주택 리모델링 등 10가지 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를 통해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세계로 연결시키려고 한다. 아시아 지역들과 새로운 유통과 수출관광 분야를 증대시키려면 일한터널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일한터널과 관련해 관광청 장관 시절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었다. 경제계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일한터널에 관해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일한터널이 한·중·일 교류 관계를 증진-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그렇지 않으면 일본도 계속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어 경제 부흥을 위해 다이내믹(활력)이 필요하다. 평범한 노력으로는 안 된다. 모든 이들은 최대한으로 마음을 내고 힘을 모아야 한다. 유라시아를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시킨다는 발상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아시아 다이내믹으로서 일한터널은 세계 경제 측면에서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이상의 의의가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교류 효과는 월드컵이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일본도 굉장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 틀로는 한계가 있다. 경제의 큰 흐름을 새롭게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일한터널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한터널은 양국의 정치와 경제, 스포츠, 문화 발전은 물론, 관광과 유통, 기술발전, 인재육성, 지역진흥, 동북아 평화 등 전방위적으로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제가 일한터널과 관계를 맺은 지도 1년이 지났다. 일본에서는 전국 47현(한국의 도격) 가운데 34현에서 민간협의체로 일한터널 추진협의회가 조직돼 있고, 국회의원과 지자체 지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일한터널 문제를 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 본다. 최종 목표는 일한터널이 정부의 프로젝트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한·중·일 관계장관급 회의에서 순회회담을 개최하여 협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은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한국도 정부차원에서 터널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기운이 조성돼야 한다. 부산 뿐 아니라 전국의 읍·면·동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생각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한일 월드컵 때에도 한일 지도자들이 거의 매일 만나 협의를 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일한터널이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제 경우는 언제까지 실현하겠다고 결정한 뒤에 일을 추진한다. 언제 성사될지도 모르는 프로젝트는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한터널을 2020년까지 한일 정부 간 협약을 체결하고, 2030년 이전까지 반드시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서로 확인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등 세계적인 대회가 아시아 지역에서 열린다. 큰 스포츠 대회를 치른 성과로서 일한터널 건설 계획을 추진하자는 한일 양국의 장관이나 정상 차원에서 논의가 나오고 플랜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혁명은 한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나는 이것을 하겠다 생각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뚫고 가겠다는 각오가 서야 한다. 일한터널의 가치를 아는 한사람 한사람이 한국과 일본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다이내믹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굳게 협력하면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본다.

“일한터널 착공위해 힘 보태겠다”

지금 한국은 새 대통령이 등장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들었다. 일본도 대도시 경제는 성장했지만 지방도시는 어렵다. 한일

두 나라는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 때문에 공통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2030년까지 일한터널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월드컵 정신'으로 밀어붙인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한일 양국에는 미래를 위해 밝은 기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비즈니스를 만드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한다. 일한터널이야말로 양국의 최대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저는 한국의 많은 분들에게 신세를 많이 졌기에 보은의 뜻으로 한일 교류와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싶다. 오늘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일한터널이 개통되기를 기원한다. 저도 일본에서 미력이나마 보태겠다.

<이 글은 지난 7월 17일 서울 반포 JS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22회 피스로드포럼'에서 미조하타 히로시(溝畑宏, 57, 오사카 관광국 이사장) 전 일본 관광청 장관이 '일한터널은 동아시아의 경제 교류의 다이내미즘' 주제로 행한 강연 내용을 발췌 게재한 것이다.>



미조하타 히로시

도쿄대 법학부를 나와 총무성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오이타현 재정과장과 문예진흥과장, 기획부 차장(월드컵, 대학 담당) 등을 거쳐 국토교통성 산하 관광청 장관을 지냈다. 현재는 오사카 관광국 이사장, 오이타 풋볼클럽 이사 등을 맡아 일본의 관광산업 발전과 체육 진흥에 힘을 쏟고 있다
